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

A Study on Building Libraries and Librarian Archive

강민지(Kang, Min-ji)** · 이해영(Rieh, Hae-young)***

1.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선행연구
 - 3) 연구 내용 및 방법
2. 사서의 직무 특성
3. 이해관계자 면담 결과 분석
 - 1) 주체 후보 단체/기관
 - 2)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기록 기준(공유) 의사
 - 3) 아카이브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록의 범위
 - 4) 아카이브의 기능, 이벤트
 - 5) 아카이브 구축 시 활용 의사
 - 6) 시사점
4.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 구축 전략
 - 1) 아카이브 운영 주체 검토
 - 2) 참여형 아카이브로의 운영
 - 3) 아카이브 수집 범위
 - 4) 아카이브 운영 관련 기능
 - 5) 아카이브 이용 활성화 방안
5. 결론

* 본 연구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학위논문(2024)을 요약·수정·보완한 것임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kang10-07@daum.net).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hyrieh@mju.ac.kr) (교신저자).

■ 투고일: 2024년 03월 30일 ■ 최초심사일: 2024년 04월 01일 ■ 최종확정일: 2024년 04월 18일.

■ 기록학연구 80, 89-128, 2024, <https://doi.org/10.20923/kjas.2024.80.089>



〈초록〉

이 연구에서는 기록이 ‘정체성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직업 아카이브가 직업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도서관 사서를 중심으로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도서관 사서와 관련된 기록을 보존하고 사서 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아카이브가 본인 스스로와 집단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구축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사서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에는 어떤 기록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어떤 기록이 사서의 정체성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면담 결과 사서의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확인하였고, 사서의 역사와 관련된 기록도 확인하였다. 또한 도서관 사서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이나 앞세대 사서들이 해왔던 도서관 서비스 등이 사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는 사서들에게 사서로서의 본인을 돌아보고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기관과 공동체 간의 협력을 통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을 제시하였다. 도서관 및 사서 기록은 한 기관만의 기록을 넘어 다양한 도서관과 공동체들의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서 사서의 직업 정체성 강화, 사서의 역사 공유, 집단 지성 플랫폼, 효율적인 업무처리, 도서관과 사서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주제어: 도서관, 사서, 도서관 아카이브, 사서 아카이브, 참여형 아카이브, 직업 아카이브

〈Abstract〉

This study believed that records could help ‘strengthen identity’ and that job archives could help provide pride and identity in

one's job by preserving the history and culture of it.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building a librarian archive could help preserve records related to librarians, share experiences and knowledge among librarians, and confirm the history and identity of oneself and the group.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ibrarians to examine what records should be included and what records could help strengthen the librarian's identity. As a result of the interview, various records related to the work of librarians were identified, and records related to the history of librarians were also confirmed. It was found that historical events related to librarians and library services provided by previous generations of librarians will help strengthen the identity of librarians. Thus, the Librarian Archive can help librarians reflect on themselves as librarians and decide on their own direction. This study presented a plan to build a librarian archive as a participatory archiv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institutions and communities. In this study, it was expected that through building a librarian archive, it would be possible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librarians, share the history of librarians, create a collective intelligence platform, efficiently process work, and improve the social status of libraries and librarians.

Keywords: Library, Librarian, Library Archive, Librarian archive, Participatory Archives, Job Archive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기록은 다양한 것을 제공한다. 주로 제시되는 것은 활동의 증거, 정보

등이다. 제프리 여(Geoffrey Yeo)는 기록의 ‘어포던스’ 개념을 제시하며 기록은 증거, 정보, 기억 외에도 다양한 어포던스를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제프리 여는 이용자가 기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록의 다양한 어포던스가 생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어포던스는 행동 유도성이라는 뜻으로, 기록의 어포던스로는 설명 책임성, 개인적·사회적 정체성과 지속성 등이 제시되었다(Yeo, 2007; 설문원 2019에서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제프리 여가 제시한 어포던스 중 하나인 개인적·사회적 정체성과 지속성을 확장하여 기록이 ‘정체성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렇게 기록이 정체성을 강화하는 예는 지역 아카이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지역 기록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찾고 보존하는 것을 돕고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손동유, 2019). 집단이 없으면 기억도 존재하지 않는다. 집단이 해체되면 기억도 상실된다. 기억에 대한 집단의 관심과 태도는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집단은 기억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공동의 기억을 통해 일체감을 확인하고 유대를 강화한다(안병직, 2007).

이처럼 지역과 공동체 아카이브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공동체의 하나로 볼 수 있는 한 전문직에 대한 아카이브는 직업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공동의 기억을 구축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록을 통하여 공동체를 지향하고 동종 업계에 대한 유대감과 일체감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서라는 전문직도 그런 공동체로, 아카이브가 구축된다면 이를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고 문화와 역사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록을 통하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나아가 본인 스스로와 집단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서혜란, 2018). 직업군과 관련한 기록을 수집하고 제공하는 것은 관련한 역사를 세우고 후배들이 직업군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직업과 관련된 학문 연구를 지원하고 발전

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황동열, 2012). 수집된 자료와 정보들을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도서관과 사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도서관은 사서 없이 운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서관계에서는 공공도서관 운동, 작은도서관 운동, 사서 노동환경 개선 운동 등의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아카이브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도서관과 사서들이 사회적으로 노력해 온 흔적에 대한 증거나 자료를 남기지 못하는 것으로 도서관과 사서와 관련된 역사적인 기록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체계적인 기록의 정리와 활용을 통해서 역사의 자료를 보존뿐 아니라, 사서 간에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및 사서와 관련한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하여 예비적 조사를 하고,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사서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이들이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가 어떠한 아카이브가 되기를 바라는지, 누가 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기록을 수집할 수 있는지, 아카이브에 어떤 기능과 역할이 필요할지 등을 살펴보았다. 도서관의 역사와 다양한 업무의 결과들을 기록으로 담아내고, 발전해 왔던 도서관과 사서의 역사를 후대에 전달하는 것은 아키비스트의 소명이라 할 수 있다. 기록은 업무 활동의 증거이자 우리 사회의 존속 이유와 미래 지향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보 자산(KS X ISO 15489-1:2021)이다. 또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자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도서관과 사서의 업무 과정과 역사를 아카이브 하는 것은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업무 활용에의 가치 측면에서도 의미 있을 것이다. 또한 잘 구축되면 사서들의 정체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도서관 및 사서와 관련한 기록을 검토하고,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의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아카이브의 구축과 운영의 주체를 검토해 보고, 참여형 아카이브로서의 구축 방안을 확인해 보며, 기록의 수집, 관리 및 활성화 방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아카이브의 구축 시작부터 사서들과 유리되지 않고, 사서들이 아카이브의 적극적인 이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여기서는 사서 공동체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하여 참여형 아카이브와 도서관과 사서에 관한 연구, 그리고 도서관 역사와 관련된 연구 등을 선행연구로 살펴보았다. 먼저 참여형 아카이브로서의 이용자 참여 기능을 참고하였는데, 설문원(2012), 박진경, 김유승(2017), 박태연(2018), 현문수(2014)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설문원(2012)은 로컬리티 기록화 관련 기록화 모형을 제시하고, 참여형 아카이브의 유형과 유형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기록화 방법에 기반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해 주었다. 박진경, 김유승(2017)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다양한 공동체의 참여, 기억의 기록과 공유 등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디지털 기술의 제공을 꼽았다. 박태연(2018)은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이용자의 참여와 기증을 유도하는 방식에 관해 서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참여형 아카이브의 유형을 정리하고, 아카이브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사용한 기능을 확인하였다. 현문수(2014)는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하여 (1)대상 범위 설정, (2)참여 주체 조사, (3)맥락/기록 조사 등을 절차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카이브 기록 수집 전 해야 하는 절차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도서관과 사서에 관한 선행연구로, 안인자, 황금숙, 노영희(2008), 김영석(2013), 송기호(2016)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안인자, 황금숙, 노영희(2008)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의 직무를 분석하였다. 분석 후

전문사서의 유형을 정리하였다. 김영석(2013)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법정 직원 수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다. 송기호(2016)는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자아상 평가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사서들은 정보서비스를 사서직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으며 직업적으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와의 갈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근무 경력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수집해야 할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도서관 역사와 관련된 연구도 살펴보았다. 이연옥(2002)은 공공도서관 운동의 발전 과정과 역사를 조명하며 운동의 전개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박미라, 이응봉(2010)은 작은도서관이 독서 운동을 비롯하여 도서관 운동과 연관을 가진다고 하며 작은도서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송승섭(2023)은 한국 근대 도서관 100년사를 훑어보며 도서관의 전반적인 역사와 기존에 알려진 최초의 근대 도서관, 최초의 사서 등을 분석하고 재제시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과 사서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이해관계자 면담을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하여 사서의 직무 특성을 살펴보았다. 사서의 업무와 관련된 기록의 범위를 살펴보았고, 아카이브의 예상 이용자인 사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도서관 사서와 도서관 연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형 아카이브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 조직과 개인의 참여도이다. 기록 생산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사서들의 아카이브 활용 유도를 위해서는 사서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서관 관련 조직 혹은 사서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사서들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내용을 토대로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사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사서의 역사를 축적하고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하기 때문에, 도서관과 사서와 관련한 기록에서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운동도 그 범위에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 중 심층 면담을 선택하였다. 심층 면담은 단순하게 수치화할 수 없는 연구에 적합하며, 설문조사와 달리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잘 이해될 수 있는 연구에 적절하다. 의사소통에 의한 관찰이 가능하며, 현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Babbie, 2021).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 형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개방적인 형태의 질문 형식으로, 양방향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abbie, 2021).

이 연구는 사서의 역사를 담아내기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서와 관련된 운동 등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단체들을 확인하여 이 단체와 관련 있는 사서들을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과 사서의 역사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도서관과 사서와 관련된 조직 및 공동체의 목록을 파악하였다. 사서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운동의 경우 개인의 활동도 있겠지만, 조직을 중심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공동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중심으로 면담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면담자 전원을 사서 동호회 등의 사서 공동체에 소속된 경험이 있거나 사서와 관련된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했다. 즉 도서관 사서와 관련한 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이하 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사연구회, 사서 노동조합, 포럼 문화와 도서관, 기타 사서로 구성된 동호회 등을 살펴보고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서들의 연락처는 단체를 통해 확인하고, 이들에게 이 연구에의 참여 의사를 먼저 타진한 다음, 동의한 사서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선

정된 면담 대상은 도서관의 역사와 관련된 논문 저술 혹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자 2명, 일반 사서 2명, 도서관에서 기록 관련 업무도 경험해 본 바 있는 중간관리자/관리자 사서 3명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표 1〉 심층 면담 대상자

응답자	기관 종류	직책	비고
A	대학도서관	사서	사서 동호회 활동 경험자
B	-	연구자	협회 관계자
C	공공도서관	중간관리자 사서	도서관에서 기록 관련 업무 경험
D	대학	연구자	도서관 역사 관련 저술
E	공공도서관	관리자 사서	도서관에서 기록 관련 업무 경험
F	공공도서관	사서	사서 노동조합 조합원
G	국가도서관	중간관리자 사서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14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진행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면담용 질문지를 송부하고, 면담은 전원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사전에 연락하여 참여자의 접근성이 쉬운 곳으로 하되, 면담에 집중을 위하여 최대한 조용한 장소로 면담 장소를 우선하여 선택하였다. 심층 면담은 참여자별로 각 1회씩 진행되었다. 면담 시간은 짧게는 70분에서 길게는 114분 진행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 하에 음성 파일로 녹음하였다. 녹음된 면담 내용은 녹취 후 질문별로 정리되었다. 연구에서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임의로 이니셜을 부여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인용하였다.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의 구축 방안과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면담 질문지는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구축 주체, 아카이브에 포함될 기록의 유형과 내용, 개인과 공동체의 참여 의사, 아카이브의 기능과 역할 등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로 아카이브 구축 시 적극적으로 나

서야 하는 단체나 기관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아카이브 구축 주체와 선호하는 구축 방식, 운영 방식을 확인해 보고자 했다. 둘째로 소속된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생산된 기록을 아카이브에 공유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는 도서관과 사서 관련 기록으로 어떤 유형, 어떤 내용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도서관과 사서 관련 공동체들이 아카이브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관련하여 사서의 업무와 관련된 기록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사서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의 유형과 내용 및 아카이브가 구축된다면 업무에 얼마나 활용할 것 같은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질문을 통해서 아카이브에서 어떤 기록을 수집해야 할지 파악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사서의 정체성과 관련된 기록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사서로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기록이 있었는지, 또는 없었더라도 이러한 기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지와 아카이브에 어떤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브의 필요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을 통해서 아카이브의 이용 대상이 될 사서와 연구자들의 잠재적인 아카이브 이용에 대한 요구와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사서의 직무 특성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사서와 관련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함으로, 사서의 직무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다. 또한 사서에게 아카이브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서의 업무 환경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안인자, 황금숙, 노영희(2008)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의 직무를 분석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은 행정

관련 업무, 도서관 홍보, 도서관 문화행사, 간행물 발간, 장애인서비스, 발전 방안연구, 도서관 구성원 교육·훈련, 국내외 도서관과 협력, 표준개발·운영, 자료 보존 업무, 이용 서비스, 서지데이터 구축, 자료 수집 업무 등을 수행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도서관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진행되는 업무로는 납본자료 수집, 도서관 구성원 교육·훈련, 표준개발·운영 등이다. 그 외 업무는 다른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 사서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다.

이처럼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사서가 수행하는 역할이 많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의 주된 도서관 이용 목적은 ‘자료 대출·이용’이 71.6%이다(한겨레, 2023). 따라서 수서, 도서 추천 등 도서 관련 업무는 사서의 업무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서 목록 생성 업무 담당자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고다솜, 윤유라, 2022), 사서들은 추천 도서 선정에 있어, 대부분 출판 목록이나 서점 동향, 전문단체, 언론사 추천 단체, 각종 수상작 등 타 권장 도서 목록에서 책의 줄거리와 서평을 찾아 읽고 추천 도서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도서 추천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과 지원이 부재하여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도서 목록이 구성되고 있으므로,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도서관 사서들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참고할 자원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서의 업무 환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인력은 국가도서관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1곳당 사서 직원의 수는 4.6명으로 법정 직원 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이다(김영석, 2013). 사서들은 일상적으로 감정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은 낮고 이를 보호하는 제도나 체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 지자체가 공공도서관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에 근무했던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신규로 입사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또한 운영 주체, 고용 형태별로 임금과 근무조건이 다르고 서울

의 경우 자치구별로 근무조건의 편차가 크게 차이 나기도 한다(내일신문, 2023). 또한 평균 근속 년수가 짧고 사서의 이해를 대변할 단체가 부재하여 일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순응하거나 이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매일노동뉴스, 2019).

송기호(2016)는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아상 평가를 통해, 사서들이 정보서비스를 사서직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으며 직업적으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와의 갈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중에서도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 된 사서는 사서직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고 근무 경력이 5년 미만인 사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서로서 자기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니기 위해서는 경험의 축적이 필요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숙련된 사서의 업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존재하여 실무상에서의 노하우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면, 사서들의 마음가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학 작품 등의 매체에서 사서들은 정형화된 이미지로 묘사되었는데(송기호, 2016), 이는 이용자들이 사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경험한다는 의미이므로 사서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대중에 조금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9년 기준 사서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으로, 많은 수의 사서가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KBS NEWS, 2021). 이는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업무를 맡기 어려워 단기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게 되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기 어려워지며 근무 연속기간이 짧아 직원 간의 원활한 소통 및 공유가 부족해져 업무 활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서의 업무와 관련한 기록들 역시 모아 공유 및 활용하게 된다면 사서들의 역량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이해관계자 면담 결과 분석

1) 주체 후보 단체/기관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가 만들어진다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구축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응답자 전원이 아카이브를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했다. 예산 확보가 주요한 관건으로 지속해서 언급되었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단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언급되는 기관은 ‘도서관협회’와 ‘국립중앙도서관’이었다. 전원 어느 한 기관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도서관협회나 국립중앙도서관, 타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좀 더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단체가 있는지를 묻자 그나마 도서관협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응답자 C),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응답자 D, E), 그 외 기관 간의 협력 등 타 기관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응답자 A 외 3인)이 있었다.

도서관협회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설 경우의 이점은 현재 도서관협회에서는 도서관대회를 진행하고 있고, 여타 도서관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도서관협회의 예산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응답자 C).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사서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이 있고,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미 오아시스(OASIS)라는 디지털 자원 수집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가도서관으로서 국가 단위로 기록을 수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다(응답자 D,

E). 나머지 의견들을 살펴보면 지역 기관 간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응답자 A), 한 기관의 주도가 아닌 모두의 협력을 통하여 구성하자는 의견(응답자 B), 공식 기관이면 아무 곳이든 상관없다는 의견(응답자 F), 작은 단체 주도로 점점 범위를 넓혀가자는 의견(응답자 G) 등이었다. 협력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할 경우에는 인력 문제나 협력 가능성이 공통으로 우려되었지만,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경우, 협력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다만 기관 간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처음부터 작게 시작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응답자 A, G).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일단 작게 지역별로 하는 게 좋지 않나…”(응답자 A)

“기관들이 협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관들이 중심이 필요하고 중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에서 처음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중략)… 제일 좋은 방법은 작은 단체가 먼저 모아보는 거지.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늘려나가면서 협력의 주체들을 모아나가는 게 더 저는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응답자 G)

국가 차원에서 아카이브가 구축된다면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컬렉션 등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카이브가 이용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되었으며(응답자 G), 이와 유사하게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아카이브를 주장한 의견도 있었다(응답자 B).

2)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기록 기증(공유) 의사

도서관과 사서 관련 공동체와 개인들이 아카이브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생산된 기록을 아카이브에 공유할 의사에 대해 질문 하였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록에 대한 아카이브 기증이나 공유 의사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응답자 A 외 5인). 그러나 공유와 기증에 대해 회의적이거나(응답자 C), 기증과 관련한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응답자 D, G). 즉 기관 자료의 경우에는 기증이나 공유가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사서들의 신분이 공무원이 많다 보니 자료를 공유하는 데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 같다는 우려였다.

“전 제 자료는 항상 나중에 공유할 걸 생각하고 만듭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공무원은 함부로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유를 못 하는 거지만. 담당자가 이거를 공유했을 때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서 공유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이건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용자에게] 자신[있는 답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개를 못 하시구요.”(응답자 G)

개인정보에 관한 우려나, 기관에서 만든 자료일 경우 기관 홈페이지 등 내부 기관에서 관리될 텐데, 그 자료가 다시 아카이브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응답자 C). 본인이 제작해서 본인이 만든 자료일 경우에도, 본인이 관장 등 관리자의 입장을 알 수 없으며, 본인이 온전히 다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도 허락을 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응답자 C, G). 연구자료도 마찬가지로 면담 자료 등의 경우 연구자가 연구 목적으로 가공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연구자 마음대로 공유나 공개를 할 수 없음도 언급하였다(응답자 D).

한편, 아카이브에 자료를 기증할 마음은 있으나, 기록 정리가 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겠다는 의견도 있었다(응답자 E). 덧붙여 이용률에 따라 공유 의사가 결정될 것으로 본 응답자도 있었다. 이용률이 높고 이용자 간 활동이 활발한 경우라면 서로 상호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용률이 낮아 본인만 자료를 올렸을 경우에는 본인의 자료가 혹시나 잘못된 자료일 경우에도 피드백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다(응답자 A).

3) 아카이브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록의 범위

아카이브에 포함되어야 할 기록에 어떤 것이 있을지, 사서들의 생산기록 유형 및 내용과 사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생산기록 유형으로는 업무 관련 기록과 도서관과 사서 역사 관련 기록으로 나누어 의견을 들었다.

(1) 도서관과 사서 관련 생산기록 유형 및 내용

응답자들이 제시한 본인들의 생산기록 유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응답자가 공통으로 일상 업무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언급하였다. 기관 보고서, 용역 보고서, 행정 처리 문서, 총회/회의 자료, 도서관 사서 일지, 매뉴얼, 지침, 표준 등, 주로 문서로 생산되는 기록이 포함된다. 둘째, 마찬가지로 모든 응답자가 언급한, 행사와 관련된 기록들이 있다. 세미나/강연 자료집이나 행사나 워크숍 사진, 행사 포스터 등 사진과 이미지도 포함된다.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은 디지털 이미지 파일 외에도 물리적으로도 생성된다. 셋째, 도서관과 관련된 자료들로, 추천 도서 취합 목록, 독후감, 장서개발정책문, 도서 컬렉션, 도서 추천 자료 등이 있다(응답자 A 외 4인). 이는 주로 문서로 생성된다. 도서관 홈페이지나 도서관 시스템에 저장된다.

넷째, 타 기관이나 단체와의 네트워크 관련 자료로(응답자 B 외 3인), 단체 협약, 총회 자료, 회의록, 성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도서관이 마을 행사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마을 행사 공식 자료, 포스터, 도서관/마을 사진, 전시 자료 등의 문서, 동영상, 사진, 이미지 등 디지털 파일과 전시에 사용되었던 사물 등 물리적 자료가 생성된다. 다섯째, 사서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이다(응답자 B 외 2인). 성명서, 협회 발기인 자료, 기관지, 신문, 뼈라, 뉴스레터, 인터뷰, 회지, 도서관 탐방 영상 등이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자료가 포함되는데 문서, 동영상, 마이크로필름, 구술자료, 이미지, 비디오 테이프, 서신, CD, 브로슈어 등이 있다. 사용되는 저장 매체로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도서관 홈페이지와 도서관 시스템이 많이 이용되고, 업무 외 활동으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의 사용 비중이 높으며, SNS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응답자 A 외 5인). 이 외에도 노션,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카페, ZOOM 등이 사용된다(응답자 A 외 5인). 대체로 디지털 자료로 저장되고 관리되고 있으나 간혹 물리적 자료의 저장을 위하여 사무실, 개인 공간 등에 보관하기도 한다고(응답자 B 외 5인) 하였다.

① 도서관 업무 관련

도서관 관련 업무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수서 및 장서개발 관련하여 추천 도서 목록이 언급되었다(응답자 A 외 2인). 수서 담당자가 도서 구매 전 인터넷 서점 사이트나 잡지 등에서 취합한 추천 도서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 같은 방식으로 추천 도서목록을 작성하는 도서관이 있다면 기관별로 작성하기보다 함께 작성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면 해당 업무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둘째, 도서관의 컬렉션 구성과 관련한 자료이다(응답자 E, F). 도서관은 책을 중점적인 자료로 다루는 기관이고, 책과 관련한 서비스가 도서관의 본연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서들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서관 컬렉션을 잘 구성하

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컬렉션을 구축하기 전에 관련한 자료를 오랜 시간을 들여 서치를 해보거나 다른 도서관에 연락을 돌리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아카이브를 통해 관련 업무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셋째, 장서개발 정책 등의 자료로, 기관마다 정해진 규칙이나 정책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공유한다면 업무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응답자 E). 수서 회의 내용 등도 간략하게나마 공유된다면 마찬가지로 참고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응답자 E).

또한 사서의 기존 업무에 대한 노하우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업무 노하우의 공유도 기대되었다. 문화 프로그램 기획이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할 때, 다른 도서관의 사례가 참고되므로 그러한 업무 노하우가 아카이브에서 제공되고 그것을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응답자 A 외 3인).

다음으로 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가 언급되었다(응답자 C 외 2인). 기관에서 공적으로 발행한 자료나 기관에서 운영한 사서 내부 세미나 자료, 기관에서 수행한 서비스나 프로그램과 업무 성과, 이용자의 피드백과 이용자들이 생산한 자료, 업무 계획, 업무 보고, 업무 매뉴얼, 홍보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에는 저작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진행했던 도서관의 자료나 사례가 모여 도서관의 역사가 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응답자 C). 한편, 공식적인 기록은 이미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고 또 기록의 양이 많으므로,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에서는 비공식적인 기록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응답자 G). 세미나나 강연 자료는 업무와 필요한 정보임에도 공식으로 출판되지 않아 사서들이 공유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자료들이 아카이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서들의 경험담도 언급되었다(응답자 C 외 2인). 이는 업무 노하우와 유사할 수도 있으나,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에세이나 글, 구술자료 등을 통해 선 후배들의 이야기를 모으자는 의견이었다.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도서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아~ 그래.’ 이렇게 공감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응답자 E)

다음으로 도서관 매뉴얼 관련 의견이 있었다(응답자 A, G).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서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나 공통으로 수행하는 업무(대출, 반납 등)의 매뉴얼 공유를 통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강연 등의 행사, 보고서 작성법이나 표 작성법, 도서관의 각종 지침도 이러한 매뉴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도서관과 사서 역사 관련

도서관과 사서와 관련한 역사와 관련된 기록에 대해서는, 우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의 수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응답자 B 외 4인). 도서관과 관련하여 알아야 하는 사건이나 역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하여 도서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해방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왜곡되어서 들어왔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도서관의 중요한 분기점에 있던 사건으로는 정책 부서 이관, 도서관법의 제정과 개정, 전국사서협회/국가도서관위원회/사서 노동조합 등 협회와 단체 설립 등의 사건이 꼽혔다.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도서관이나 사서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등의 기록이 잘 수집되어 정리된다면, 같은 이슈가 반복되었을 때 비록 대응에 실패한 사례라고 해도 그를 본보기 삼아 다르게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히 결과만 남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기록도 남겨지면 후배들이 선배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응답자 A 외 4인).

“요즘에 일어나는 이슈들에서, 도서관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 도서관 책 빼라고 할 때, 그런 걸로만, 뺀 것만 나와 있다면 흑역사인데, 그걸 위해서 [어떤] 행보들로 이렇게 바뀌나갔다,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기록으로 잘 남겨주면 좋겠다.”(응답자 E)

도서관의 역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록들은 남아있어야 하며 실패한 역사도 성공한 역사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아카이브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응답자 B 외 2인). 부끄러운 역사도 잊어서는 안 되며 모두 포함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하여 공식 자료를 수집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자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술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설령 구술 기록 중 왜곡된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서의 생활사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응답자 G). 그 외에도 사서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건이나, 그동안 도서관이 무엇을 했는지, 공공도서관이 지역사에 기여한바 등에 대한 기록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응답자 D).

현재 시급한 과제는 도서관과 관련한 역사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라고도 했다(응답자 B, C). 도서관 사서/관장,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 1세대 사서들이 은퇴 혹은 사망하게 되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 자료들도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록과 자료를 우선하여 수집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응답자 B).

디지털 자료만 보관하기보다 물리적 아카이브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응답자 B, D). 도서관의 역사에서 유일하고 핵심적이라면 도서관에서 사용하던 물품들도 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카드 목록함, 타자기, 사용하던 비품 등을 통하여 도서관의 발전 과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며, 그로써 직업적 정체성의 뿌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구술 기록도 도서관의 역사를 모으는 방법의 하나로 제시되었다(응답자 G). 구술 자료를 가독성 있게 운문하거나 동영상의 경우에는 편집을 거쳐

서비스하면 더욱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양한 도서관 업무 관련 자료들 및 도서관과 사서들이 중심이 된 역사적 사건들과 도서관 발전 과정의 기록들은 아카이브의 중요한 핵심 자료가 될 것이다.

(2) 사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

이 연구에서는 기록이 사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사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록에 대하여 면담 대상자들에게 따로 질문하였다. 사서들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록의 내용으로 먼저, 사서들이 지금까지 해 온 역사적 활동과 관련된 사안이 언급되었다(응답자 B 외 4인). 역사적 사건에서의 앞세대 사서들의 활동을 통하여 사서의 고민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에 본인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응답자 B).

“사서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전문성, 주도성을 발휘해서 한 활동에 관한 기록들이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같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를 인지하고, [이걸 통해서] 연결고리로 만들어 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특히 직업은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전체[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응답자 B)

그리고, 본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었다(응답자 C 외 3인). 본인이 개발한 시스템이나 수행한 사업이 도서관에 미친 좋은 영향을 지켜보며 사서로서의 정체성을 쌓아갈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응답자 C).

그리고 본인이 수행하지 않았어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수행한 도서관의 사례를 보면 지역사회에서의 의미나 지역 주민들의 변화나 성과 등을 살펴볼 수 있고 이 안에서 사서의 존재감이나 직업적인 가치의 실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았다(응답자 D).

“도서관의 지역사회에서의 의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를 통해서 변화, 성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자료를 통해] 사서가 지역사회에 이렇게 필요한 존재구나[느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혁신적인 서비스 모형들이 좀 공유가 된다면 어떨까.”(참여자 D)

관련하여 사서들이 도서관에서 해온 노력이 업무의 증거로서 기록에 남겨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응답자 F). 사서들이 해온 업무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긴다면 그것을 토대로 신규 직원의 채용을 요구하거나 임금 등의 처우 개선을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로써 사서들의 전문적인 역량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사서로서 도서관 업무나 이슈 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서의 태도로부터 감명을 받거나 영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응답자 E, F). 또한, 도서관만의 고유한 독자적인 기능을 아는 것이 정체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어떤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응답자 G). 때문에 도서관에서만 하고 있는 목록(MARC)이나 정보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등의 활동 등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았다. 이러한 사서들의 자부심을 고양하는 내용 및 공간 사서들의 노력에 대한 내용들이 담긴 기록들이 아카이브에 수집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4) 아카이브의 기능, 이벤트

아카이브 이용 및 활용 의견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아카이브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이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먼저 ‘검색’ 기능이 언급되었다(응답자 C 외 3인). 검색 시에 아카이브에서 소장 기록과 함께 관련 노하우나 자료들도 제시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응답자 C, E). 주제별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응답자 C, F)과 정보 콘텐츠 제공도 언급되었다(응답자 C 외 2인). 아카이브에서 연대순 및 시대순으로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은 대부분 공공기관이므로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마다 진행되었던 정책·있었던 사건 등도 함께 정리하여 보여주면 유용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엑셀 내려받기 등의 공유 기능도 필요한 기능으로 언급되었다. 그 외에 댓글이나 추천 등의 감정 표시 기능이 언급되었다(응답자 A, E).

아카이브에 필요한 이벤트로는 ‘교육’이 언급되었다(응답자 A 외 3인).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시간을 인정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응답자 A). 교육 내용으로는 아카이브 사용 방법뿐 아니라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한 교육에도 관심을 보였다. 사서들에게 기록의 중요성이나 기록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알려주는 교육이 있다면 교육을 듣고 거기에 맞추어 도서관의 기록을 정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에 맞추어 도서관의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으므로 노션 등 무료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 기록관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추가 의견이 있었다(응답자 E). 그 외에 다른 오프라인 이벤트에 대해서는 대부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전시, 교육, 출판 등의 사업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응답자 B).

아카이브에서 기대하는 바는 첫 번째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도움이 있었다(응답자 A 외 3인). 자료를 찾는 시간을 줄이고, 좀 더 많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도서관이 발전하고 사서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자료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두 번째로는 사서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점이였다(응답자 A 외 3인). 이는 현재의 노력이 다음 세대를 더 낮게 만드는 밑거름이 됨을 인지함으로써, 사서들에게 하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세 번째로는 집단 지성 플랫폼이었다(응답자 A 외 2인).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네 번째로 도서관과 사서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었다(응답자 B 외 2인). 사서가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 대중에게 어필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사서들은 이를 통해 자긍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섯 번째로 정보 콘텐츠 제공이었다(응답자 C 외 2인).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는 사서와 관련한 기록을 큐레이팅 하여 하나의 테마로 만들고 이를 서비스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단, 아카이브가 역사에 집중할 것인지, 콘텐츠에 집중할 것인지에 따라 아카이브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응답자 C).

5) 아카이브 구축 시 활용 의사

아카이브가 생긴다면 실제 사용할지에 대한 의향을 물었을 때, 대다수 참가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응답자 A 외 4인). 대다수 참가자는 주기적 업로드를 중요하게 여겨, 자료가 주기적으로 업로드되지 않는다면 아카이브의 운영 여부를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업로드 주기로는 2주나 1달에 1번 등이 제시되었다.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어렵다면, 사이트에 알림을 신청해 놓은 사람들에게 자료가 등록될 시 알림을 주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응답자 E, F). 또한, 몇 개 이상의 기관의 자료가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에는 지금도 업무 중 자료 조사를 할 때 3~4곳을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아카이브에 5개 이상의 기관 자료만 모여있어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 답변이 있었다(응답자 E, F).

한편 우선 활용보다는 수집 및 보존이 더 시급한 문제임을 언급한 응답자도 있었다. 현재 많은 도서관 자료가 유실되고 있으며,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모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응답자 B).

“공공이야 그래도 어떻게든 [수집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은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고,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든 창구가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하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응답자 B)

6) 시사점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속 가능한 아카이브 운영을 위한 주체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체 기관이나 단체는 여러 장 단점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명확히 하나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하나의 기관이 맡아서 하기보다는 여러 공동체의 협업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참고하여, 하나의 주체를 세우는 방식이 아닌 여러 단체의 참여로 아카이브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주체로서 참여하지 않더라도 더욱 많은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개인의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업무상 발생한 자료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도서관 대부분은 국공립기관이므로 법에 따라 기록을 관리해야 하여 임의의 기증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업무기록까지 참여형 아카이브의 수집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를 도서관이라는 기관으로까지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업무 관련 기록으로는 추천도서 목록, 도서관 컬렉션 구성 관련 자료, 장서개발 정책, 업무 노하우, 기관 공식/비공식 자료, 사서들의 경험

담, 업무매뉴얼 등이 언급되었다. 특히 기관의 비공식자료인 기관 세미나나 강연 자료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임에도 공식으로 출판되지 않아 사서 개인이 구하기 어려우므로 아카이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관 역사 관련 기록으로는 도서관의 중요한 분기점에 있던 사건 등의 역사적인 사건 기록, 관련한 구술 기록, 역사적 물품 등이 언급되었다. 도서관과 관련한 역사는 현재도 기록이 유실되고 있으며 특히 1세대 사서들의 은퇴 혹은 사망으로 기록이 유실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이들의 기록을 우선하여 수집할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사서의 정체성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역사적 사건,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준 사서들이 수행해 온 자랑스러운 업무 관련 기록들이 언급되었다. 아카이브를 통하여 사서들이 노력해 온 업무의 증거가 보존된다면, 이를 통하여 사서들의 전문적 역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아카이브 기능으로는 검색, 주제별 검색, 정보 콘텐츠 제공, 공유하기, 댓글 등 상호작용 기능 등이 언급되었고, 아카이브에 필요한 이벤트로는 다양한 교육이 있었다. 또 아카이브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처리, 사서의 역사 공유, 집단 지성 플랫폼의 역할, 도서관과 사서의 사회적 지위 향상, 정보 콘텐츠 제공 등이 기대되었다.

대부분 아카이브가 생긴다면 활용할 것이라 응답하였으나, 지속적인 콘텐츠 업로드가 필요함이 언급되었다. 아카이브에는 최소 5개 이상의 기관 자료가 수집되는 것이 기대되었다. 이러한 의견들과 기대들에 기반하여, 다음 장에서는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 구축 전략을 제시해 본다.

4.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 구축 전략

구축 전략에서는 아카이브 참여 혹은 주체 공동체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아카이브를 운영할 만한 주체를 검토하였다. 또한 아카이브에 수집할 기록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기록과 역사기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아카이브 운영에 필요한 기능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1) 아카이브 운영 주체 검토

면담 결과 아카이브 구축 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기관으로는 도서관협회, 국립중앙도서관, 여러 기관의 협력 구축, 지역별 아카이브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면담 결과 아카이브를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이 모든 응답자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아카이브 운영 주체는 단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무엇보다 아카이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핵심 요소로 언급되었다.

먼저 아카이브 구축 주체로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은 도서관협회이다. 도서관협회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도서관계의 대표 협회이다. 도서관협회는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도서관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서의 역사를 축적하고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여 사서의 업무 효율성을 상승하고자 하는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 구축 수행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협회는 현재 도서관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전국도서관대회 관련 기록을 아카이브에 포함하기도 용이할 것이다. 또한 한국도서관연합을 발간하고 있어, 전국의 도서관 정보와 자료 역시 수집하기 용이할 것이다. 다만, 협회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카이브를 구축하기에는 예산이 우려된다는 의견(응답자 C)이 있어, 이는 하나의 한계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려할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사서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고,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미 오아시스(OASIS)라는 디지털 자원 수집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국가자료종합목록, 한국고문헌종합목록 등 이미 도서관 사서에게 도움이 될 자료목록들을 제공하고 있다. 『조선십진분류표(1947)』, 『장서분류목록(1961)』,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부일지』 등 도서관과 사서와 관련된 역사 기록을 소장하고 있기도 하다(송승섭, 2023). 특히 2004년부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관련 기록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미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국가도서관으로서 국가 단위로 도서관 및 사서와 관련한 기록을 수집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면담 응답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세 번째는 도서관협회나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한 기관이 아니라, 단체들이 공동으로 나서서 같이 하고 같이 참여하여 협력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어떤 기관에 속하면 기관의 입장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므로, 별도로 독립된 아카이브를 만들어야 안정적이고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응답자 B, G). 또한, 국가 차원에서 아카이브가 구축된다면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컬렉션 등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기 어렵지만, 처음부터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에 의해 구축된다면 이용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컬렉션이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응답자 G)도 있었다. 이 경우 인력이나 원활한 협력 관계 구축 문제가 공통으로 우려되어 처음부터 작게 시작하거나 지역별로 구축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응답자 A, G).

그러나 도서관협회나 국립중앙도서관, 혹은 제3의 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선다고 해서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가 구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사점에서 언급하였듯이 면담에서 주관기관이 어느 한 기관으로 응답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았지만, 공통으로 나온 의견은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면담에서 개인들은 아카이브에 기록을 기증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기관에 소속된 입장으로서는 기관 자료의 기증에는 주저함을 보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협회,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기관들과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참여형 아카이브로의 운영

참여형 아카이브는 다수의 수집기관이나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구축되고 운영되는 아카이브로,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그들의 기록을 생산, 저장,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박원석, 2020). 설문원(2012)이 제시한 참여형 아카이브의 유형 중 조직 참여형에서 제1유형은 수집기관 간 협력과 참여, 제2유형은 수집기관과 공동체 아카이브의 협력과 참여이다. 제2유형에서 수집기관은 소장자료의 균형 및 다양성 제고, 이용자층 확대, 공기록 및 출판물 중심 서비스 제약 극복 등의 이점을 얻고, 공동체는 공동체 역사와 기록의 사회적 표출, 전문적 보존 기술 및 보존 공간 지원, 기록조직, 전시, 교육 등 업무 지원 혜택 등을 받는다(설문원, 2012). 제1유형의 예시로는 공공기관 간의 협력으로 구성된 공연문화예술아카이브네트워크 등이 있고, 제2유형의 예시로는 공동체의 협력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인권아카이브 등을 들 수 있다.

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을 통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면, 아카이브에서는 더 많은 공동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함으로써 이용자층을 확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장자료를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하여 사서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풍습, 특이점 등을 수집하고 관리 및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서 공동체는 전문적인 보존 기술 및 보존 공간 또한 협력적으로 지원받음으로써 안정적으로 공동체의 역사를 보존하고 관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사회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체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내외적으로 사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자체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고자 하며 아카이브에의 참여 의지가 있는 공동체를 파악하고 나아가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아카이브가 포괄할 대상 범위를 설정하는 일이다. 파악된 공동체들과는 최대한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아카이브 수집 범위

(1) 업무기록

첫 번째 수집 대상 기록은 도서 관련 기록이다. 여기에는 추천 도서 목록, 장서개발과 관련한 자료, 도서관의 컬렉션과 관련한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추천 도서 목록의 경우 사서들은 추천 도서 선정을 출판 목록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고다솜, 윤유라, 2022), 면담에서도 수서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매체에서 추천한 도서를 구매하기 위하여 온라인 서점 등의 새로 나온 책, 베스트셀러 등을 참고하여 추천 도서 목록을 작성하고 있음이 언급되었다(응답자 A). 사서들은 다양한 자료에 의존하여 추천 도서를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추천 도서 목록을 모아서 볼 수 있는 아카이브가 생긴다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 수집 대상 기록은 사업이나 행사와 관련된 기록이다. 사업이나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다른 도서관의 사례가 참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타 기관이나 단체와의 네트워크 관련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책 읽어주는 사업 등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먼저 필요한 사업도 있기 때문이다. 기관에서 사업과 행사 종료 후 공적으로 발행한 업무 성과 보고

서, 업무 계획, 업무 보고, 업무 매뉴얼, 홍보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면담에서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진행했던 도서관의 자료나 사례들이 모여 도서관의 역사가 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응답자 D), 한 도서관에서 진행한 행사나 사업 등이 다른 도서관에도 영향을 주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수집 대상 기록은 업무 노하우이다. 여기에는 사서들의 경험담 등을 담은 구술자료나 도서관 공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매뉴얼 등이 들어갈 수 있다. 앞서 면담에서 살펴보았듯 행사 등 도서관에서 공통으로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은 타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았다(응답자 A 외 2인). 이는 업무 노하우를 찾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숙련된 경험을 나누고, 참고할 업무 정보원이 될 수 있는 아카이브가 존재한다면 사서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네 번째, 사서들의 연구 자료들과 교육자료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학계와 사서들이 수행한 학술연구, 외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 해외 연수 보고서 등의 보고서 등도 포함될 것이다. 이는 사서의 개인 역량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 기관에서 사서들에게 실시하는 내부 교육, 연수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에서도 도서관 실습을 오는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실습생들을 위해 준비한 자료들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 세미나나 강연 자료는 업무와 필요한 정보임에도 공식으로 출판되지 않아 기존에 사서들이 공유하기에 어려웠다. 공식 자료는 공개되어 찾아볼 수 있으나 비공식자료의 경우 자료가 남지 않아 찾아보기 어렵고 보존 역시 되고 있지 않음이 면담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응답자 G). 이러한 자료들이 아카이브에 포함된다면 업무 효율성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카이브를 통하여 기록이 계속 축적되고 찾아볼 수 있게 된다면 다음 사서들이나 관련 직종 사람들이 참고하여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도서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는 등의 시간이 단축되거나 새로운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을 실험할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또한 기록은 사서가 노력해 온 업무의 증거로서 이것을 토대로 신규 직원의 채용이나 처우 개선을 주장할 수 있게 기능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있었다(응답자 F). 면담에서 사서가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태도나 지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나 사서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과 관련된 자료들이 사서로서 정체성을 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업무기록 역시 사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혁신적인 서비스 사례를 통해 도서관의 존재감을 알리고 사서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으며, 도서관만의 고유한 독자적인 기능을 아는 것도 자부심을 느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역사기록

도서관 및 사서 역사 기록에서 첫 번째 수집 대상 기록은 도서관과 사서와 관련한 ‘최초’의 기록이다. 현재의 공공도서관은 근대적 개념이므로 근대 도서관 개념과 관련한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아야 한다. 해방 이후 역사와 관련해서는 최초의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와 최초의 사서 자격증 발급 등의 기록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수집 대상 기록은 ‘사건’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다. 면담에서도 이슈나 동향 자료는 한곳에 모아 두는 것만으로도 도서관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응답자 B 외 4인). 이때 면담에서 실패한 역사도 성공한 역사도 모두 수집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되었다(응답자 B, E). 사건들을 중심으로 컬렉션을 구성하고, 이와 함께 중심인물이나 운동에 대한 증언 등으로 기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술 채록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들의 체험과 기억, 그리고 관련 기록을 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면담에서도 사건을 이야기로

구성하여 흥미를 끌기 위한 컬렉션 구성 등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언급되었다(응답자 G). 어떤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법」 등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의 법령 제정 전후의 기록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수집 대상 기록은 인명 및 단체 기록이다. 해방 이전의 단체와 인물, 해방 이후 단체와 인물에 대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서들만의 조직 외에도 ‘어린이도서연구회’나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등의 도서 관련 조직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아카이브에서 인물 및 단체 정보를 관리한다면, 도서관계의 사조직 등 활동 단체들의 목록과 중심인물 정보에 대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각 시대를 이해하는 기록물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해방 이전 있었던 단체 자료도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세대 사서들의 은퇴나 사망으로 인한 기록 유실 우려로 아카이브의 시급 과제는 도서관과 관련한 역사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라는 면담 의견(응답자 B)을 받아들여 인물을 중심으로 한 구술 자료 및 컬렉션 구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수집 대상으로 카드 목록함, 타자기, 사용하던 비품 등 물리적 자료이다. 이는 직관적으로 도서관의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사서들의 직업적 뿌리를 보여줄 수 있다. 물리적 자료를 아카이빙 할 때는 다양한 매체의 특성에 따라 각양각색의 보존 환경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각종 장비나 여러 가지 포맷으로 수집될 것을 고려하여, 포맷을 변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용량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 긴 시간 속에서 쌓여온 도서관과 사서의 역사와 기억, 그 발자취가 풍부하고 심층적으로 쌓여갈 수 있을 것이다.

4) 아카이브 운영 관련 기능

아카이브의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능은 우선 기록 검색 기능이다.

면담에서 언급되었듯이(응답자 C 외 3인) 검색은 모든 아카이브의 기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검색 기능 및 필터 기능을 활용하여 기록에 대한 검색과 상세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할 것이다.

참여형 아카이브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기록물을 기증받아 구축해야 하므로 생산 주체들이 기증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자들이 쉽게 기록 기증 방법을 찾고 기증할 수 있도록 별도 페이지를 운영하거나 기증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기록물을 아카이브로 온/오프라인으로 원활하게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도, 당시 기록물 생산을 주도했던 개인들이 아카이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만들어야 한다. 개별 이용자가 될 사서들의 참여 기능 역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자료 다운로드 및 공유하기 기능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이 아카이브 외부로도 자료를 공유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집 대상 기록 중 추천 도서 목록, 장서개발과 관련한 자료, 도서관의 컬렉션과 관련한 자료 등 도서 관련 기록에서 자료 다운로드 기능은 이를 참고하고자 하는 사서들에게는 필수적일 것이다. 기록 수집 시 기록 기증과 함께 기증과 관련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추후에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저작권 관련 라이선스 표기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 기록을 기증받을 때는 가능하면 기록과 관련된 구술 채록을 수집하여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아카이브 이용 활성화 방안

활성화 방안 첫 번째는 다양한 기록 콘텐츠의 개발 및 제공이다. 이는 검색 기능과 더불어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끔 돕는 도구가 될 것이다. 또한 컬렉션은 아카이브에서 어떤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접근하는 이용자들이 아카이브를 살펴보는 것에 도움이 된다. 이용자들이 아카이브에서 찾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고 관심을 끌 만한 주제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테마를 발굴하여 컬렉션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모아서 검색하는 것 이상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면담 의견에 따라(응답자 G) 기록을 잘 엮어 스토리로 보여주는 것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용차 참여 기능이다. 운영 방안에서도 언급되었던 이용자 참여 기능은 이용 활성화를 이끄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태그/코멘트 등으로 이용자끼리의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가 직접 기록에 대한 코멘트를 남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메타데이터 등의 데이터 보강도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도서관이나 사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서나 도서관계 인사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까지도 아카이브 사용자의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담에서도 사서의 업무 노하우나 사서의 경험담 등의 공유를 통하여 업무력과 서비스력의 상승을 기대한 바 있다(응답자 C 외 2인).

세 번째로, 공동체의 기록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다. 아카이브에서는 이들이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아카이브에서도 공동체에서 기증한 기록을 사용하는 전시 등을 통하여 공동체의 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호 간의 신뢰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공동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기록을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공동체들의 참여도 유도해 내기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순환구조를 끌어낸다면 아카이브의 기록은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질 것이다. 이때, 단체 사정에 맞춘 현실적인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단체 내에서 최소한의 기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사서 공동체들은 예산이나 인력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이나 사서와 관련한 공동체가 붕괴하거나 더 이상의 자료 보관이

어렵다면 관련한 기록이나 자료를 아카이브에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나 정책도 필요하다. 특히 공동체가 사조직일 경우 갑자기 해산할 가능성도 있으며 구성 인원 역시 고정적인 구성으로 가기보다는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록이 유실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공동체가 해산할 시에는 아카이브로 소장 기록을 기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을 관리하는 문화가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카이브에 공동체가 참여할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 공동체가 맥락과 기술에서도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가/정리/기술 단계에서 자신들의 기록과 콘텐츠를 정리하고 기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설문원, 2012). 아카이브에서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통해 사서 공동체나 기관 등의 기록물을 쉽게 수집하고 컬렉션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기록 기술을 통하여 참여 기관과 사서 공동체는 본인들의 활동 내용을 대중들에게 알릴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전부터 단체들의 신뢰를 얻는 것은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는 이런 점을 참고하여 수집기관과 공동체 아카이브의 협력과 참여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소유권과 통제권을 공동체가 지니면서도 활용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이러한 신뢰도를 상승시킬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경래, 이광석, 2013).

마지막으로 목록 제공 등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아카이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서 관련 커뮤니티와는 다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의 커뮤니티들을 참고하여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의 이용률을 높일 것인지, 기존의 사서 커뮤니티의 업무 자료 공유 게시판과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아카이브 구축 자료목록을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등을 통해 발송하여 아카이브 소식을 지속해서 노출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응답자 E, F). 아카이브가 안정적으로 되고 나면 전시, 출판, 연구지원 서비스 등의 사업도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의 구축을 통하여 사서의 역사를 쌓고 사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 사서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업무 효율성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떤 기록을 수집하고 활용할 것인지 확인하고, 아카이브를 구축 당시부터 사서들과 유리되지 않도록 하여 아카이브의 적극적인 이용자가 되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 연구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아카이브 주체로는 도서관협회, 국립중앙도서관, 제3기관 등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주체 기관보다 중요한 것은 기관과 공동체 간의 협력이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협회,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기관과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하였다.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사서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카이브를 통하여 앞세대들이 해온 노력을 알게 되고, 현재의 노력이 다음 세대를 더 낮게 만드는 밑거름이 됨을 인지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사서의 정체성이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사서의 역사 기록과 업무기록은 사서들의 직업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이는 사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세 번째로 집단 지성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를 통하여 사서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이로부터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네 번째로 정보 콘텐츠 제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카이브를 통해 교육 자료나 역사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아카이브가 업무 참고원 역할을 함으로써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사서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아카이브를 통하여 사서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인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고 도서관 사서의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구축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를 수립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사서와 도서관 연구자 일부에게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구축 방향을 조사한 것으로 사서의 전반적인 인식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면담 대상 사서를 단체 소속으로 선정하였으나 중요 단체 소속이 고루 분포되어 있지는 않으며, 일반 사서의 시각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논문은 면담에 기반한 아카이브의 구축과 운영 등에 대한 제안으로, 실질적으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수집해야 할 구체적인 영역은 사서들의 업무 영역에 대한 맥락 및 기능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록화 영역을 선정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 아카이브 목적, 기능 및 역할, 사서직에 필요한 기록의 수집 범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다숨, 윤투라 (2022). 지역대표도서관의 추천도서목록의 현황과 과제. 인문사회 21, 13(6), 463-476.
- 김영석 (2013). 우리나라 16개 시·도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323-342.
- 박미라, 이응봉 (2010). 작은도서관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제17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23-131.
- 박원석 (2020). 덕질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박진경, 김유승 (2017).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2), 219-243.

- 박태연 (2018).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사례를 통한아카이브 자생력에 관한 연구.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1, 53-60.
- 서혜란 (2018). 기록과 기록관리: 기록이란 무엇이며, 어떤 원칙에 의해서 관리되는가? 한국기록관리학회 (편),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pp. 13-34). 서울: 조은 글터.
-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4.
- 설문원 (2019). 기록이란 무엇인가: 활동의 고정적 재현물로서의 개념 탐구. 기록학연구, 59, 5-46.
- 손동유 (2019). 민간분야 공동체 아카이빙의 성과와 과제. 실천민속학 연구, 34, 39-63.
- 송기호 (2016). 의미 변별법을 활용한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아상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53-69.
- 송승섭 (2023). 한국 근대 도서관 100년의 여정. 서울: 도연문고.
- 안병직 (2007). 한국사회에서의 ‘기억’과 ‘역사’. 역사학보, 193, 275-306.
- 안인자, 황금숙, 노영희 (2008). 직무분석을 통한 국립중앙도서관사서의 핵심업무 및 전문사서 유형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1), 129-148.
- 이경래, 이광석 (2013).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 기록학연구, 37, 3-39.
- 이연옥 (2002).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233-258.
- 황동열 (2012).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발전방안. 기록인, spring(vol.18), p.22-27.
- 현문수 (2014). 로컬리티 아카이브로서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개발 모형 설계. 기록학연구,(41), 3-38.
- Babbie, Earl R (2021).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고성호 외 옮김 (2021).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센케이저러닝코리아.
- Korean Industrial Standards X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2021.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Records management (KS X ISO 15489)』.
- Yeo, Geoffrey (2007). Concepts of record (1): Evidence, information, and persistent representations. The American Archivist 70(Fall/Winter 2007), 315-343.
- 내일신문 (2023). “서비스 수요 느는데 사서 채우는 열악”. 내일신문. 2023.6.22.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64660

- 매일노동뉴스 (2019). 서울 공공도서관 사서 3명 중 1명 비정규직. 매일노동뉴스. 2019.10.30.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82>
- 한겨레 (2023). 도서관에 대해 시민이 바라는 것. 한겨레. 2023.10.27.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113854.html>
- KBS NEWS (2021). 공공도서관 3곳 중 1곳·학교 절반, '사서 수 법정 최소 기준' 안 지켜. KBS NEWS. 2021.4.2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71995>